

사설

창간 9주년의 다짐

10월15일로 본지 창간 9주년. 내년이면 독자 여러분 앞에 성큼 성장한 모습 보여 줄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여러 어려움이 없지 않은 가운데서도 1년 후 불국정토를 위한 교계 리딩 미디어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현대불교 임직원들은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 합니다. 이 땅에 부처님 말씀을 고루 전하고, 세계인의 정신영토에 불법의 자리를 더욱 넓혀 가리라 독자들에게 다짐했던 창간일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엄격히 검증하고 그동안 기울였던 노력의 성과와 부족했던 점을 가려 미래불교 미디어로서의 참다운 자리매김에 힘을 다하려 합니다. 지난 9년간 본지는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라는 목표를 세우고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미

디어 시스템의 구축에 힘을 모으는 한편 포교 방안으로서의 소프트웨어 개척에도 기울여 나갔습니다. 건강한 항체(抗體)임을 자임하며 교단 내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지적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평화 통일 환경문제 등 불교와 무관치 않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그 대안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무언가 미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앞으로 그 부족함을 찾아내 보완하려 합니다. 많은 성과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은 그동안 저력을 지원해 주시고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신 독자님들의 몫이라는 점을 새삼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10주년을 맞는 내년, 보다 성숙한 모습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합니다.

보시운동을 활성화하자

날씨가 추워진다. 추운 것은 날씨만이 아니다. 오랜 불행과 정치 불안으로 사람들의 마음도 춥다. 특히 일자를 찾아 못해 고달픈 하는 젊은이들이나 태풍 '매미'로 인해 삶의 터전이 사라지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시나브로 다가오는 겨울은 두렵기만 하다. 우리 주변에는 찬 바람이 두려움을 넘어 혹독한 현실의 수비에 애는 곳이 너무 많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이 수용된 복지 시설들에 부는 찬 바람이 대표적이다. 불교계 복지시설들은 벌써부터 긴장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한다. 배추 한 포기 보시 운동이 전개되고 김장 재료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속속 개최되고 있는 것이다. 불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용어 중의 하나가 '보시'일 것이다. 남이 즐겁고 내가 즐거운 보시와 봉사 행위

아말로 가장 숭고한 인간 사랑의 실천이다. 지금처럼 사회 전반이 차가운 시절이야말로 조건 없이 베푸는 일보다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이다. 의례적으로 '때가 되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다가 '내가 굳이 동참 안 해도...'라는 생각을 해서 안 된다. 자원봉사에 동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자원봉사에 나서고 한 번이라도 보시를 한 사람이 다시 보시를 한다고 한다. 최근 개최된 '기빙 엑스포'의 성과가 돋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악재가 많은 시절이야말로 보시와 봉사라는 아름다운 인연에 동참할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사찰에서나 신행단체들이 올 가을을 보시와 봉사의 계절로 정하고 모든 불자가 아름다운 인연 맺기에 동참하도록 앞장서 주길 바란다.

영산재등 불교의식 이론 세운다

태고종 세미나 정례화·관련연구지원 강화

영산재보존회, 19일 봉원사서 학술대회

영산재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태고종이 영산재를 비롯한 전통 불교의식의 이론 정립에 나선다. 태고종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는 10월 19일 봉원사 동별당에서 '전통불교의식의 현황과 영산재'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영산재 재현이라는 실기 분야를 강조해 왔으나, 이번 행사를 통해 영산재의 학술적 연구와 이론 정립에 나서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영산재보존회는 학술세미나를 정례화하고 영산재 관련 논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윤식 서울국악예술고 교장의 기초강연으로 시작되는 세미나는 법현스님(종교대 교수)의 '불교의식의 전승과제-영산재를 중심으로'와 정병호(중앙대 명예교수)의 '불교영향 받은 종교적 춤과 예술적인 춤', 유민영(단국대) 석좌

교수의 '불교예술의 현황과 무대화 방안', 법현스님(종교대)의 '한국불교의례의 사상', 김영렬(전 KBS 제작국장) 씨의 '한국문화예술과 매스미디어-불교의식 영산재를 중심으로'가 발표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영산재 재현을 문화포교의 일환으로 접근, 현대에 맞는 포교방식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발표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법현스님은 최근 30여 년간 급속도로 맥이 끊겨온 불교의식을 살리기 위해 '각 종단의 통합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 이론적 뒷받침, 불

교의식관련 연구기관 설립, 무형문화재 발굴, 불교의식의 전승보존 작업, 재정적 후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를 통한 불교 대중 포교에 나서야 한다'고 현재 불교의식전승의 과제를 제시한다. 유민영 교수는 "불교계의 적극적인 후원과 탁월한 작품의 생산이 불교주제 공연물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구공사의 극단 지원이나 법현스님 주도의 무용단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문화포교 확대방안을 논한다.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묘종대중사 3일 입적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태인당 묘종 대중사가 10월 3일 입적했다. 세수 97세, 법랍 58년. 1907년생인 묘종스님은 46년 일승사에서 일승종 2대 종정 묘익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래 평생 수행과 포교에 진력해 일승종 종도와 불자들의 정신적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아 왔다. 또한 중무행정에 있어서도 총무부장, 중앙고시위원회 부위원장, 중앙교육원 부의장, 중앙종회 부의장, 원로의원 등을 역임하는 등 종단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영결식은 7일 구리 삼봉사에서 총무원장 혜경스님, 중앙종회 의장 해인스님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박봉영 기자

신도등록 인터넷으로 한다

조계종, 전용사이트 15일 개통

신도등록도 인터넷 시대를 맞았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인터넷을 이용한 신도등록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10월 15일 전용 사이트(http://sindo.buddhism.or.kr)를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사찰과 신도들은 앞으로 이 사이트를 통해

신도등록과 신도증(제발급, 신도 정보 관리, 등록현황, 신도교무금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인터넷 신도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고, 사찰은 프로그램 권한 계정을 얻은 후 이용할 수 있다.

권형진 기자

3급 승가고시 최종합격 320명

조계종, 7일 산림회향식·법계 품수

승랍 10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계종의 3급 승가고시가 한층 엄격해졌다. 참가한 하연 통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고시가 강화되면서 탈락자가 속출한 것이다.

22명이, 2차 고사에서 다시 43명이 떨어져 16.8%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권형진 기자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베)은 10월 7일 제3회 3급 승가고시 산림회향식을 갖고, 3급 승가고시 최종 합격자 320명(비구 156, 비구니 164)에게 각각 중덕(비구)과 정덕(비구니) 법계를 품수했다.

시절 횡수와 과목이 확대된 이번 3급 승가고시에는 386명이 참가했으나 1차 입방 전 고사에서

조계종·태고종간 분규중인 청련사

종단간 협의없이 매각추진

조계종과 태고종간 분규사찰 가운데 하나인 서울 하양십리 청련사(안정사라고도 함)가 양 종단간 협의 없이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련사의 한 신도의 제보로 알려지자 시작된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토지매각을 위해 서울의 S개발업체와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개발업체의 한 관계자는 "청련사 토지 매입을

시도해 계약이 이뤄졌다면, 문제가 있어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에 있다. 지금은 다른 업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실제로 매각이 추진됐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와 청련사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이와관련 태고종 총무부장 월해스님은 "민약 공문 내용과 다른 일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종헌준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토지가 매각됐다면 민·형사상 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가림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청련사는 신라 흥덕왕 2년(827) 창건되어 무학대사에 의해 중창됐으며, 왕십리라는 지명과 연관 있는 사찰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다. 현재는 전체 토지 가운데 996-1, 997-1, 997-2 번지 등은 태고종 청련사 소유로, 997, 998, 995-10, 1006-1, 산6-12 번지 등은 조계종 청련사 소유로 되어 있으며, 태고종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조계종은 사교사찰로 지정해 놓고 있다.

박봉영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현대'만평 심민섭

10을 할때 9에 셋습니다

전통한정식 복려

정갈하고 담백한 전통한식으로 스님과 불자들을 모십니다.

예약전화 : (02)2269-7155 (주최장원비)
 5호선 동대문운동장역 6번출구 (인쇄정보센터빌딩 지하) 금강심 안장 배례

뿌리 깊은 종단, 화합된 모습으로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 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철안스님 취임법회

삼보에 귀의 하옵고, 종단의 대덕 큰스님과 사부 대중의 격려 속에서 주지 취임 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취임법회는 단순한 주지 취임 법회가 아닌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법석으로 만들고자 하오니 두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회환이나 화분을 빨고 김장으로 대신합니다.

이번 취임법회에서는 우리 주변의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기로 발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례화 되었던 회환, 화분 등 축하용품은 절대 사절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쌀과 김장으로 대신하기로 하였으니, 이 뜻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47(2003년) 10월 24일(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남양주시 봉선사 큰법당
- 문의 : 전화 (031) 527-5974, 1951 / 주지실 (031) 527-5972
- 동참금 : 쌀 1가마 일십만원 / 김장 1독 칠만원
- 계좌번호 : 농협 204064-51-001470 / 예금주 : 봉선사 총책연구실
-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 총책연구실 : (031) 527-3224

대한불교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주지 취임법회 준비위원회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우편번호 : 472-864 팩스 : (031)527-1958

*동참자 명단은 11월 7일자 불교신문에 게재합니다.